

## 「청구QUICK」, 도입실적 업계 1위 쇼핑몰 플랫폼 「NEXT ENGINE」과 연계

~ EC사업자의 인보이스 제도 대응과 효율적인 청구서 발행 업무를 지원 ~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SBI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사장: 나츠카와 마사키, 이하 「당사」)는 DX를 가속화하는 클라우드형 청구서 발행 시스템 「청구QUICK」에서 도입실적 업계 1위\*1의 클라우드(SaaS)형 EC Attractions 「NEXT ENGINE」을 운영하는 NE 주식회사(본사: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대표이사 사장: 히고 노리요시, 이하 「NE」)와 상호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청구QUICK」의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NE의 「NEXT ENGINE」이 최초로 수발주 시스템과 직접 연계합니다.

\*1 인터넷 경제신문 조사(2018년7월)



도입실적 업계No.1을 자랑하는  
클라우드 (SaaS) 형 EC Attractions  
복수의 온라인 상점 상품 등록,  
재고관리, 수주처리 일원화, 자동화

월 이용료 0엔 청구서 발행시스템  
청구서의 작성·발행부터 입금확인·기장,  
청구서 매입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도 탑재  
인보이스 제도, 전장법에도 대응

EC Attractions 「NEXT ENGINE」의 일원관리시스템과 「청구QUICK」 연계!  
합산 청구서의 발행 등 편의성 향상과 함께 인보이스 제도 등의 법 대응이 가능

### ■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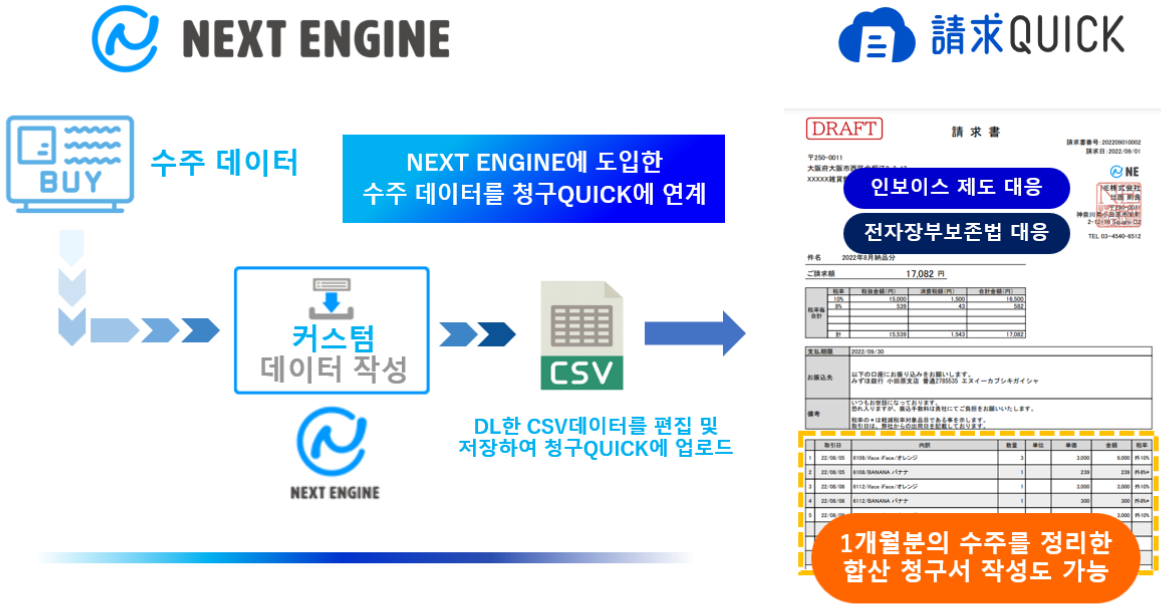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 행태 변화를 계기로 대면 판매에서 온라인 전환 및 복수의 EC몰 입점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BtoC-EC 시장 규모는 20조6,950억엔\*2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EC화율도 8.78%로 크게 신장했습니다. 특히 상품판매계열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코로나19 사태로 변용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는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 측에서는 EC 매출의 확대에 따라 백엔드 업무인 수주처리·재고관리·출하·배송·문의 대응 등의 운영에 드는 인적부하가 증대됨과 함께 효율적인 EC 운영이 가능한 OMS\*3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3년 10월에 개시되는 인보이스 제도나 개정 전자장부보존법의 완전 시행 등의 법 개정은 수발주 업무가 많은 사업자의 청구서 관리 영역에서 특히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사업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법 제도에 입각한 형태로 청구서 발행이나 전자 보존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EC 사업자의 백엔드 업무인 수발주 처리의 효율화와 법 개정을 계기로 한 청구 업무의 디지털화 등의 과제 해결에 공헌하기 위해 「청구QUICK」과 「NEXT ENGINE」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NEXT ENGINE」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주문 데이터에서 손쉽게 인보이스 제도에 대응하는 청구서를 「청구QUICK」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참고 : 일본 경제산업성 「2021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2022년8월)」  
<https://www.meti.go.jp/press/2022/08/20220812005/20220812005.html>  
 ※3 OMS : Operating Management System. 복수의 EC숍 통합관리가 가능한 클라우드형 EC플랫폼



「NEXT ENGINE」을 이용하는 EC 사업자는 「청구QUICK」과의 제휴에 의해, 마감일마다 수주를 정리한 합산 청구서 등을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한 청구서는 인보이스 제도나 전자법에 준거한 형태의 전자보존도 가능합니다.

■ 인보이스 제도 대응하는 합산 청구서도 간편하게 발행하여 청구 업무 대폭 효율화

「NEXT ENGINE」은 수발주 업무 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수주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커스텀 데이터를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번 「청구QUICK」과의 연계를 통해 「NEXT ENGINE」을 이용하는 EC 사업자는 CSV에서 수주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편집·저장한 후 「청구QUICK」에 업로드함으로써 월별·마감일별 수주를 정리한 합산 청구서 등을 쉽고 효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QUICK」은 등록번호 기재나 소비세 계산과 같은 인보이스 제도의 요건에 맞춰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개정 전자장부 보존법에 준거한 청구서 사본의 전자 보존도 가능하므로 법 대응 측면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C사업자용 클라우드형 EC Attractions 「NEXT ENGINE」을 중심으로 모든 커머스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NE와 클라우드형 청구서 발행 시스템 「청구QUICK」을 통해 수발주 처리를 포함하여 기업용 청구서 발행으로 경리의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당사는 파트너 계약을 통해 상호 제휴하여 EC 사업자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개정 법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함께 추진해 가겠습니다.

■ SaaS & FinTech로 중소기업의 경리DX를 지원하는 「청구QUICK」

「청구QUICK」은 웹브라우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청구서 발행 시스템입니다. 청구서 작성·발행을 통해 페이퍼리스화 및 업무 효율화를 실현하는 청구서 관리 SaaS에 중소기업의 경영과제를 해결하는 FinTech 서비스로 금융기관 API 연계를 통한 자동명세 취득 기능으로 번거로운 입금확인 작업을 대폭 효율화하는 「입금확인QUICK」과 발행 청구서의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기능인 「카드결제QUICK」, 발행 청구서를 클릭 몇 번으로 자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 기능인 「입금QUICK」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SaaS & FinTech의 노하우와 최신 기술을 담은 「청구QUICK」은 경리업무 효율화를 고민하는 중소기업에 매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 청구QUICK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서비스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ikyuquick.sbi-bs.co.jp/>

무료 등록 접수는 이쪽 : <http://seikyuquick.sbi-bs.co.jp/trial/>

【SaaS & FinTech로 구성된 「청구QUICK」 개요도】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의 중추 역할인 경리담당자를 위해 백오피스 업무 DX화의 선진적인 대처를 추진함과 동시에 고객의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에 진지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백오피스부터 경영과제를 해결하고, 자금이나 인적 리소스 등이 부족하기 쉬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갈 것입니다.

## ■ NE 개요

회사명 : NE 주식회사  
소재지 :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 사카에마치 2-12-10 SquareO2  
대표자 : 히고 노리요시  
설립 : 2022년 5월  
자본금 : 1억만엔  
사업내용 : EC지원 · SaaS 사업, 컨설팅 사업  
URL : <https://ne-inc.jp/>

## ■ 당사 개요

회사명 : SBI 비즈니스솔루션즈 주식회사  
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이즈미가든타워  
대표자 : 대표이사 사장 나츠키와 마사키  
설립 : 1989년 9월  
자본금 : 3억 5천만엔 (자본준비금 등 포함)  
사업내용 : 백오피스 지원 서비스 제공  
URL : <https://www.sbi-bs.co.jp/>

###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mailto:ir@sbi-finsol.co.jp)